

우즈벡 고려인 영웅, 김병화 서사담 연구*

강현모(한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영웅담의 서사구조와 의미 |
| 2. 생애와 지역적 전승양상 | 5. 맺음말 |
| 3. 전승유형과 의미 | |

1. 머리말

본 연구는 우즈벡 고려인의 노동영웅인 김병화 서사담¹⁾을 통해 전승 양상과 현대적 영웅담의 서사구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려인들은 김병화가 우즈벡에서 세 번째 노동영웅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이주한 고려인이란 이유 때문에 세 번째 노동영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즈벡 고려인들은 영웅으로 인식하는 김병화에 관한 일화들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영웅서사담이란 서사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2A01021265

1) 김병화에 관한 이야기는 구비문학 장르의 설화로 보기도 어렵고, 현실담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화도 있고 집단적 성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서사담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김병화 서사담을 통해 과거의 힘(무사)의 영웅담이 아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영웅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병화 서사담을 선정한 것은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의 노동영웅 중에 황만금, 김만삼과 같이 고려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크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집단적 거주지역인 꼴호즈(집단농장)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병화 마을이란 특수한 꼴호즈가 존재하고 있다.

고려인의 설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일천하다. 설화의 조사와 연구로는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 61편과 김 아나톨리가 우즈베크 타쉬켄트 주 빨리따즈황만금농장에서 조사 정리한 자료 28편, 저자를 만나 조사한 1편 등 총 90편을 수록한 이복규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²⁾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우즈베크의 고려인 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최근에 필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필자는 우즈베크 타쉬켄트 인근과 페르가나 계곡,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자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과 의미-전승방식을 중심으로-」에서는 고려인의 이야기 전승방식을 구술 방식, 책을 통한 방식, 연극이나 영화 통한 방식 3가지가 있음을 밝혔다.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에서는 우즈베크 고려인에게 전승하는 전설과 민담의 유형적 전승양상 밝혔다. 또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내용과 의미」에서는 고려인의 설화에 첫째, 전통적인 민족 의식 발현, 둘째, 공산주의 의식을 반영한 세계화, 셋째, 이주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착화 현상 등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김군태 교수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야기꾼 십이반 사례 연구」란 제보자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³⁾ 그럼에도 김병화 서사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 연구는 우즈베크에 전승되는 고려인 노동영웅 김병화 서사담을 현지 조사하여 전승양상과 현대적 영웅담의 서사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즈베크 고려인들이 현대적

2)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2008.6.

3)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과 의미-전승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5집, 비교민속학회, 2011. 8.,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의 양상」, 『비교민속학』 제47집, 비교민속학회, 2012. 4.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 51집, 비교민속학회, 2013. 8. 김군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야기꾼 십이반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학』 85집, 한국언어문화회, 2013. 6.

인물담을 어떻게 전승시키고, 추구하는 영웅담적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나름대로 민족의 정체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밝히도록 한다.⁴⁾

노동영웅인 김병화 서사담의 전승양상과 서사구조에서는 김병화가 우즈벡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규명해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첫째 인물담에 대해 현지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둘째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영웅상의 모습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요구하는 오늘날 사회적 조건에 따른 새로운 영웅화의 서사구조의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생애와 지역적 전승양상

2.1. 생애⁵⁾

김병화는 1905년 8월 5일에 함경도 경흥 대평재라는 마을에서 김치만의 3남1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침략 야욕과 탄압으로 생활이 점차 구차해졌다. 김병화는 1914년에 아버지가 형을 데리고 러시아의 노동인력으로 진출하며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가을에 아버지가 보낸 포수 3명의 인솔로 병든 어머니, 누나, 동생 병일, 몇 명의 친척들과 함께 러시아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도착하였을 때 마적 떼의 공격을 받아 가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병화는 구사일생으로 아버지를 만나 수이푼 지구 차빠고우에서 생활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김병화의 탄생지를 차빠고우로 호적에 올렸다. 병화는 학교를 고려인이 운

4) 성동기, 『김병화-우즈베키스탄 불멸의 고려인 영웅, 재외동포재단 선전 자랑스런 한민족』, 재외동포재단, 2006. 이 책의 김병화 서사담 자료들은 에브게니 텐의 『김병화에 대한 전설』(타쉬켄트, nd)에서 재인용한 것 같다. 이 책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읽기 쉽게 수록된 14편 정도에서 필자가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5편이 있고, 필자가 조사한 자료도 내용이 상반된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김군태·강현모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글누리, 2015)에 필자가 조사한 7편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5) 김병화의 생애는 현지조사에서 당질인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의 구술 자료와 성동기의 위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영하는 곳과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다녔으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만두었다. 그는 청소년기에 소비에트 혁명을 겪으며 주경야독으로 세월을 지냈다. 병화는 17세 때 군에 입대하려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으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낙담하였다. 병화는 이때 홍범도를 만난 뒤, 마을에 돌아와 권유받은 공청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병화는 20살이 되던 1925년에 공청년에서 마약재배 퇴치운동을 하다가 만난 오기봉과 결혼하였다. 1926년에 징집 소환되어 붉은군대 노동적위대에 입대하였는데, 공청년의 활동으로 하사관 양성학교에 들어갔다. 뒤에 분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포상을 받을 때 홍범도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딸 마리아를 낳았다. 1927년에는 직업 군인으로 당원이 되었다. 1929년에 아들 니콜라이 낳았고, 중소영토분쟁에 참여하였으며, 동생 병일이 모스크바 철도기술전문학교 합격하였다. 불행하게도 형 병희, 모스크바에 왔다 연해주로 돌아가던 부인이 사망하였다. 병화는 군사정치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이라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장교가 된 김병화는 1932년에 오병수와 재혼하여 평탄하게 생활하였다. 스탈린 정권은 1937년에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김병화도 1938년에 체포되었다 7개월 만에 무혐의로 풀렸다. 이때 당원 자격을 회복하였으나, 12년 동안 꿈꾸어 왔던 군인생활을 청산하고 노바야 지진이란 새삶농장의 건설기술자로 오게 되었다. 김병화는 1940년에 구역담당자(당책)가 무능하였던 올라라야 지베스, 즉 북극성농장⁶⁾의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김병화는 꼴호즈의 책임자로 부임하여 각 부서장들과 회합을 할 때 말하기보다 주로 들었다. 그는 새벽 5시의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마을에도 사이렌을 울렸다. 김병화는 회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원들과 수로를 만들고 갈을 베어내며 농토를 확장하였다. 그는 회장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하고 잉여생산물을 회원들과 동일하게 분배하였다.⁷⁾ 또 농장에 도서관, 병원, 학교, 상점, 마을회관, 사무실, 체육시설

6) 북극성 집단농장은 1929년 연해주 미하일 지구 리포카마을에서 최희자가 조직하였다. 김병화는 김기녹의 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김병화는 김기녹의 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3대 회장 때(1937~1939)에 이곳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런데 꼴호즈 회장의 선출방식은 회원들이 선출이지만, 실제로 상부의 결정한 것을 추인하였다.

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공동체 생활을 추구하였다.

김병화는 마을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농경지를 확보하여 1080ha까지 확장하였으며, 1951년부터 주변의 농장들을 합병하여 꼴호즈를 키워나갔다. 또 돈이 될 새로운 목화농사, 삼농사를 다른 꼴호즈보다 앞서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바꾸었다. 그리고 마을에 자체적인 발전시설을 갖추어 전기를 사용하였고, 새로운 농업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편의와 부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꼴호즈는 김병화가 부임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왔다.

김병화는 전쟁기간에 오히려 꼴호즈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김병화는 단위 생산량을 높여 북극성 꼴호즈에서 26명의 노동영웅을 탄생시켰고, 자신도 2번의 노동영웅을 받았다. 김병화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은 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려인들이 소련 시민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갈 때, 1974년 5월 7일에 위엄으로 우즈벡 고려인들의 영웅으로 일생을 마쳤다.

2.2. 서사담의 지역적 전승양상

김병화는 꼴호즈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1974년 5월 죽을 때까지 이곳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인 부와 정신적으로 자족적인 주민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내적 요인과 더불어 소련에서 노동영웅을 두 번이나 받은 이중노동영웅이란 외적 요인으로 김병화에 대한 서사담이 생성되었다.⁸⁾ 특히 그는 회장으로 있던 마을이 뒷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김병화 마을'로 명명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도하였던 마을은 물론이고 우즈벡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김병화에 관해 영웅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많은 일화들을 생산하여 남겼다. 김병화 서사담은 기존의 설화문학에 의존하여 재생산한 삽화들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생산된 삽화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쪽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김병화 서사담은 한민족 문화 양식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7) 김병화 농장에서는 전쟁 기간인 1943년 1월 24일에 비행기를 만들게 잉여농산물 221만 1400 루블을 헌납하였고, 김병화도 개인으로 10만 루블을 헌납하였다.

8) 노동영웅을 두 번을 받고 세 번째 받지 못한 일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김병화 서사담은 필자가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을 현지조사 한 결과 97편 정도를 수집하였다.⁹⁾ 김병화 서사담을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타슈켄트 주의 김병화마을에서 85% 정도인 81편을 조사하였으며, 기타 지역으로 타슈켄트 시와 주에서 14편, 그리고 안디잔 주에서 2편을 조사하였다. 김병화가 우즈벡에서 이중노동영웅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물이지만, 그에 관한 서사담은 안디잔을 제외하고 활동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김병화 서사담은 김병화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안디잔에서 김병화 서사담을 구술한 제보자인 송정림 안나다닐네브나는 김병화마을에서 살다가 20년 전에 안디잔 인근 부가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타슈켄트에서 조사한 한 발렌티노 역시 김병화마을 출신이고, 3편을 구술하여 준 김 블라지미르는 김병화마을의 출신이 아니지만, 신문기자이며 소설가인 동시에 누나가 김병화마을의 간부와 결혼하여 살았다. 시온고에서 김병화 서사담을 언급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았던 박 블라디미르와 셀리바퀴도 김병화마을에서 간부로 일하였다. 이상에서 김병화 서사담을 구술한 제보자들은 거의 김병화마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김병화가 우즈벡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병화 서사담은 김병화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승의 특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병화 서사담은 지역적 전승 양상이 특이하다. 중앙아시아 전승되는 유명한 인물 설화(일화)로 흥범도, 김만삼, 황만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즈벡의 인물들인 김병화나 황만금 서사담은 지역적으로 전승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병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고, 황만금도 노동영웅이지만 그에 관한 일화는 그가 지도하였던 빨리따즈에

9) 김병화 서사담의 현지조사 기간과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09년 4월과 7월에는 우즈벡 고려인 설화를 조사 중에 김병화마을에서 28편을 채록하였다. 본격적인 1차 조사는 2012년 10월 20~28일까지 타슈켄트 시에서 5편과 김병화마을에서 53편을 조사하였다. 본격적인 2차 조사는 2013년 2월 19-27일까지 타슈켄트 시와 주, 페르가나 계곡의 3개 주에서 하였는데, 안디잔에서 2편과 타슈켄트시에서 8편을 조사하였다.

반면에 2012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려인의 무형문화유산의 토대조사 중에 이루어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조사, 2014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흥범도 일화를 조사하는 중의 카자흐스탄 조사, 이복규의 전개서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조사 등에서는 김병화의 이야기를 1편도 조사하지 못하였다.

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인물인 홍범도는 카자흐스탄의 전국 뿐만 아니라 우즈벡, 키르기스스탄에도 전승되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의 노동영웅인 김만삼도 그가 활동하였던 크즐오르다 인근뿐만 아니라 알마티,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케크 인근에서 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 원인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한편 김병화 서사담을 구술한 제보자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자료를 많이 구술한 사람은 김병화 마을에서 회장을 역임한 김병화의 당질인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이다.¹¹⁾ 김병화 박물관 관장이었던 장태 에밀리안과 음악가 한 발렌틴이 5편 이상이고, 그 밖의 제보자들은 1-3편에 구술하여 편중되어 있다.¹²⁾

김병화 서사담은 주변의 인물이 전승시키는 일화 혹은 사실담이라 하겠다. 사실 김병화 서사담은 대부분이 곁에서 일을 하였던 당질인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가 개인적으로 전승시킨 실화형 구술담이다.¹³⁾ 그런데 김병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전승시키고 있었다.

김병화 서사담의 구술은 그에 대한 존경과 동경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구술을 통해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영웅적인 모습은 과거의 무사적인 영웅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웅이

10) 홍범도 서사담은 그가 원동에서 항일운동을 하여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전부터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만삼의 경우는 김병화나 황만금과 같은 상황인데도 전승 범위가 넓고 민요로 창작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인지, 주민의 이동 등 다른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에브게니 텐, 앞의 책. 이 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성동기의 서술에 의하면, 이야기의 제보자는 필자가 조사한 김병화의 당질인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이다.

12) 김병화 자료를 구술한 제보자와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80, 남) 70편, 장태 에밀리안(65, 여) 7편, 한 발렌틴(71, 남) 5편, 신 에일리(60, 여)와 김 블라지미르(65, 남)가 3편, 송 정림 안나다닐네브나(80, 여)와 신 아나톨리 페드로비치(80, 남)가 2편, 이 펠릭스(61, 남), 이재환(85, 남), 박 블라지미르 와셀리비치(79, 남), 백만천 브로스세먼어비치(90, 남), 강 아나톨이(80, 남) 등이 각 1편이다.

13) 김 니콜라이는 호레즘에서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한 간부 출신의 사람에게 김병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병화 이야기를 듣게 이유」, 2012. 10. 23.)

었다. 즉 마을사람들은 김병화 서사담의 구술을 통해 그가 이룬 마을의 내적 외적인 역할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상에서 김병화 서사담은 그의 명성과 전승지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중노동영웅이란 훌륭한 명성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서사담은 마을을 벗어나면 전승력이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은 김병화에만 관련된 특수한 현상인지, 아니면 우즈벱을 포함한 고려인들의 인물전승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보여주는 특성인지 앞으로 다른 인물에 관한 조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3. 전승유형과 의미

본장은 김병화 서사담의 전승유형을 검토하여 그의 의미를 밝히고, 영웅적 성격을 밝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병화 서사담은 소련의 이중노동영웅이란 외적인 사회적 영웅의 모습만 강조하였다면, 죽음과 더불어 전승이 끊겼을 지도 모른다. 다른 지역의 우즈벱 고려인들은 김병화의 훌륭한 점에 동조하며 고려인의 기상을 드러낸 쾌거로 인식하지만, 김병화 서사담을 구술하지 않았다.¹⁴⁾ 그런데 그의 서사담은 죽은 이후에도 함께 일하였던 마을에서 사람에게 전승되고 있다.

김병화 서사담은 이중노동영웅인 김병화를 통해 현대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승자들은 김병화 서사담을 통해 그의 영웅적인 삶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영웅적 삶의 모습은 고전적 힘(무사적)의 영웅이 아니라 종교적 속성과 같은 변화된 현대적이고 사회주의적 영웅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현지조사된 김병화 서사담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유형으로는 첫째, 청렴결백한 지도자, 둘째, 사람을 존중하는 지도자, 셋째, 집단농장을 확장한 지도자, 넷째 가족의 규합과 관리한 지도자 등이다.

14) 김병화에게 세 번째 노동영웅을 주기로 하였는데, 우즈벱 국민의 0.5%에 불과한 민족이라 타지 못하였다는 고려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김병화의 서사담은 고려인의 한계보다 반대로 민족적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3.1. 청렴결백한 지도자

김병화는 누구보다 청렴결백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을 뿐,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증식하거나 축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조차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병화 서사담에는 자기 것조차 거의 없었던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삽화들이 많이 보인다.

그의 청렴결백한 모습은 복장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30년간 회장을 하였지만 자신의 집과 돈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지역 회장을 몇 년만 해도 지역에서 큰집을 마련하고 타슈켄트에도 큰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병화도 타슈켄트에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김병화에게는 타슈켄트는 물론이고 마을 안에도 관사로 주어진 조그만 집이 전부였다.¹⁵⁾ 그 관사도 좋은 집이 아니라 낡고 수선할 것이 많은 집이었다. 그런 집을 보고 마을의 지도자들이 집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김병화는 바로 거절하지 않고 “집에 가 생각을 해 보겠다” 하고서, 다음날 “바쁜 일을 쥐 밤새도록 고생하였다”며 거절하였다.¹⁶⁾

청렴결백한 모습은 3편이나 전승되는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즉 「굳어버린 칠료 값을 물어준 김병화」, 「보일러 놓기」, 「이웃집 장재를 마련해 주기」 등으로, 김병화의 청렴과 절의를 보여주고 있다. 꼴호즈의 구락부에서는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되어 굳어버린 칠료를 버리려고 하였다. 그중에 운전을 하던 사람이 혹시나 생각하여 굳은 칠료에다 벤젠을 섞어 놓으니 풀리어, 그것으로 김병화의 낡은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김병화는 이 사실을 알고 굳은 칠료가 꼴호즈의 공동 재산이라며 그 값을 물어 주었다. 「보일러 놓기」에서는 보일러를 놓을 사람이 집이 낡고 낮아 그냥 보일러를 놓기보다 집을 새어 지어 놓는 것이 낫다 생각하였다. 보일러공이 그렇게

15) 「장례식에서의 부인의 소원」 2012. 10. 23. 김병화의 장례식에서 우즈백의 지도자들이 김병화 부인에게 소원이 무엇인냐고 묻자, ‘타슈켄트에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 하였다. 이런 내용은 김병화의 집 만들어 주기 삽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농장에서 지어주겠다는 집을 거절한 김병화」 2012. 10. 23.; 이후 본문이나 각주에서 체보자 없이 자료의 제목만 「」 제시한 것은 김 니콜라이 벤허노비치가 구술한 자료이고, 그 밖의 체보자들의 자료들은 체보자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시하겠다.)

16) 이런 김병화의 태도는 다음 항에서 살펴볼 사람을 존중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것을 제의하자, 김병화는 거절하며 오히려 보일러 놓는 방식을 지시하여 놓았다고 한다. 「이웃집 장재를 마련해 주기」에서도 꼴호즈의 젊은 사람들이 김병화가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공동의 경비로 담장을 만들어 주었다. 김병화는 이 사실을 알고 장재(담장)를 만드는 재료값을 알아보고, 자신의 장재 값은 물론이고 붙어있는 가난한 다른 중족 집의 장재 값까지 주면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김병화는 회장을 30년간 하였지만 옷이 한 벌이었다¹⁷⁾고 한다. 여기에서 옷이란 정장을 말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지역 회장인 동시에 우즈벡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병화에게 옷이 한 벌만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사진에서도 거의 같은 복장의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도자는 돈에 관계 깨끗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독재자들은 심복들에게 축적한 부를 나누어주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혁명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권력이 와해되고 축출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병화가 34년간이나 꼴호즈의 회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존경받았던 것은 아마 돈을 깨끗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화는 잉여생산물을 회장에게 더 많이 분배를 하지도 자신의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회장과 생산담당자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들과 똑같은 양을 분배 받았다. 그는 회장에게 온 것조차 개인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꼴호즈의 공동재산으로 여겼다. 「김병화에게 보내온 약속」처럼 당질인 김 니콜라이가 약속을 집에 가져가라고 하자, 김병화는 「이것이 개인으로 온 것인지 꼴호즈로 온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며 집에 가져가지 않고 꼴호즈의 공동재산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김병화는 자신의 것조차 챙기지 않아, 믿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었다. 또 「선물로 받은 자동차」¹⁸⁾는 차를 세 번째 훈장 대신에 선물로 받았다. 그 차는 분명하게 김병화 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내어놓자 다음 회장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병화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17) 장태 에밀리아, 「옷 한 벌로 산 김병화」 2012. 10. 23.

18) 장태 에밀리안, 「선물로 받은 자동차」 2012. 10. 23. 그런데 김 니콜라이가 구술한 다른 자료에는 이 설명과 달리 큰 차를 작은 차로 바꾸어 타고 다녔다는 정도로 나타난다.

가는 자기 부인을 태우지 않고, 앞에 가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꼴호즈 회원인 아내네를 태워 주었다. 그래서 부인이 집에 와서 따지자, “그 여자가 꼴호즈의 회원이므로 빨리 집에 가 밥을 먹고 노동현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태웠다”고 한다. 또 김병화는 꼴호즈의 돈을 빌려 줄 때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회장의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담당회계의 말을 듣고 결정하였다.¹⁹⁾

3.2. 사람을 존중하는 지도자

김병화는 꼴호즈 지도자의 권위보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진 지도자였다. 이 유형의 서사담은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대표적 지도상으로 보인다. 그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따른 권위나 처신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이다.

김병화가 살던 시절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다. 이 당시 많은 회장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를 통해 권력과 부를 획득하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이런 때 꼴호즈의 회장인 김병화에게 차가 주어졌다. 그런데 김병화는 회장에게 주어진 차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꼴호즈 공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꼴호즈 공동체나 성장해 가는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였다. 그는 차를 타고 어디를 바빠 가다가도 사람을 보면 차를 뒤돌려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나 그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내려주면서, ‘내가 바쁘지 않으면 데려다 주겠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못 모신다’며 내려주었다.²⁰⁾ 이처럼 김병화가 마을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며 태워준 것은 그들의 성장이 꼴호즈 운명공동체의 비전을 기대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라²¹⁾고 하겠다.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은 회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회의란 참석자들이

19) 「규칙에 따라 돈을 빌려준 김병화」 2012. 10. 23.

20) 「마을사람을 보고 차 되돌려오기」, 2009. 7. 9., 장태 에밀리안, 「어린 아이도 태워준 김병화」, 2012. 10. 23.

21) 장태 에밀리안, 「젊은 사람에게 허리 굽히고 절한 김병화」, 2012. 10. 23. 신 아나톨리 페트로 비치(80, 남) 「차를 태워주었던 김병화」 2012. 10. 23.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김병화는 꼴포즈 안의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와 시간을 주고, 또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주어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²²⁾

한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얹혀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라 하였다. 얹혀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상대에게는 치솟는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준다.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이런 자세는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겠다.²³⁾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회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사 장해리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⁴⁾ 어느 날 장해리는 회의가 길어지고 늦어지자, 기다리기에 지쳐 술을 한 잔 먹고 차속에서 잠이 들었다. 자기 운전사가 술을 먹고 잠이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깨우며 노발대발 소리쳤을 것이다. 그런데 김병화는 장해리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운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이후에 술을 끊었다고 한다. 이런 김병화 행동은 운전사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를 통하여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식은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김병화가 꼴포즈에서 잔치해야 할 가정에게 비용을 미리 대여하여 주고 연말에 정산하도록 한 것도 인간을 존중하는 배려행위라 하겠다. 어느 집이든 결혼이나 잔치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병화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꼴포즈에서 잔치 비용을 대여하여 풀어주었다.²⁵⁾

한편, ‘일을 할 때, 자신이 하는 일에 겁을 낼 필요가 없다’거나, ‘남에게 부탁을 할 때는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라’는 것²⁶⁾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지만, 그 속에

22) 「지역 일꾼을 배려해라」 2009. 7. 10.

23) 「손님은 얹혀 놓고 대화 하라」 2009. 7. 10., 2012. 10. 23.

24) 성동기, 앞의 책, 235~236면.

25) 「잔치 비용을 조합 돈으로 대여 해준 김병화」 2012. 10. 23.

26) 「남에게 부탁할 때는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려라」 2012. 10. 23.

인간존중 의식이 깔려 있다. 이는 일상적인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생활철학이며 삶이다. 이런 삶을 견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 하겠다.²⁷⁾ 비밀은 국가와 사회 조직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비밀은 거대한 조직이 한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동시에 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그 비밀을 발설하였다가 탄로가 나 낭패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비밀을 유지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 때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3. 집단 농장을 확장한 지도자

이 부분은 김병화 서사담에서 영웅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김병화가 영웅을 받은 것은 단위 노동생산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농장의 확장을 통해 조합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병화는 농장의 확장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추앙되었다.

농장의 확장에 대해 검토해 보면, 김병화는 새삼 농장에서 건설기술자로 활동하다가, 1940년에 추천을 받아 북극성이란 꼴호즈의 회장으로 부임한다. 이때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주면 2년 안에 능력 있는 활기찬 마을로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의 동의를 얻은 김병화는 온통 갈밭을 옥토로 만들도록 마을 주민이 합심할 것을 부탁하며, 손수 앞장을 섰다. 「북극성의 지도자로 부임한 김병화」에서 김병화는 새벽 5시가 되기 이전에 단별인 양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회의를 준비하였고, 마을에 방송하여 모두가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의 표면적인 의미는 철저한 지도자로서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²⁸⁾

김병화의 가장 큰 업적은 농장의 확장이다. 그는 작은 농장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개척 시기에는 갈밭인 이곳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로 전환

27) 「비밀을 지켜야 한다」 2009. 7. 10, 2012. 10. 23.

28) 「북극성의 지도자로 부임한 김병화」 2012. 10. 23.

시키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김병화를 더욱 높이, 그리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환은 김병화가 직접 물구덩이의 깔 밭을 농토로 일구어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²⁹⁾고 한다.

김병화 농장은 원래 작아 이웃 농장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병화는 개발한 깔 밭에 벼를 심었지만, 산업의 추세와 국가적 여건으로 보아 목화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벼농사 짓기에도 부족한 땅에 목화를 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김병화는 11km나 떨어진 다른 농장 곁에 있는 황무지 땅을 얻어 처음으로 목화를 심었다. 농장은 목화 심기를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 결과 목화에서만 한 해에 7명이 노동영웅이 나오는 등 전 소련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마을에서 총 26명의 노동영웅이 나왔다.³⁰⁾

마을에서 많은 영웅이 나온 것은 마을 공동체의 살아있는 생동감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든 것은 김병화의 탁월한 지도력에서 비롯되었겠으나,³¹⁾ 그런 지도력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청렴결백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김병화는 농장의 확장을 계속하였다. 그는 마을의 외적인 확장³²⁾ 이외도 문화 시설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내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 마을에서는 1943년에 조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선진화에 앞장섰다. 전기 생산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면서도 단위 생산량을 높이고, 마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전기는 원래 농업용이었으나 저녁에 가정에 보급하여 어둠을 벗어나게 하였다.³³⁾ 또 전쟁 때 사용하였던 폐차를 얻어다가 배터리로 목화 뜯는 기계를 돌렸고, 타이어를 사람들에게 이롭게 사용하였다.³⁴⁾ 그리고 조합사무실, 병원, 극장, 축구장을 만들어

29) 이재환, 「깔 밭을 개발한 김병화」, 2009. 7. 9.

30) 시온고의 마을에서도 22명의 노동영웅이 나왔다. 전 소련 인구의 0.5%인 고려인들은 노동영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근면하고 창의적인 민족으로 각인시켰다. 그리하여 고려 민족은 적성국가의 민족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1) 김병화가 탁월한 능력을 보인 것은 농촌지도자들과 의견 교환이나 남보다 앞선 미래에 대한 전략(목화 농사, 삼 농사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2) 「극성농장의 확장」, 2012. 10. 23., 「목화심기를 서두른 김병화」, 「독려한삼 심기」, 2009. 7. 9.

33) 「조합 발전소 만들기」 2009. 7. 9., 2012. 10. 23.

34) 「배터리를 얻어 목화 뜯는 기계 돌리기」, 2009. 7. 9. 2012. 10. 23.

주민들에게 마을 안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³⁵⁾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갑 잔치를 찾아온 담당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마을에 이르는 길과 자동차와 가스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⁶⁾

3.4. 가족의 규합과 관리의 지도자

가족은 사회생활의 시작이면 최소단위이다. 유가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가족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도자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지도자들 중에는 가족들을 규합하고 관리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도자는 가족을 규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화 서사담에도 가족을 규합하고 관리하는 자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김병화가 부인이나 자식 등 직계 가족을 관리하는 삽화만 보이고 규합하는 삽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김병화도 가족으로 실패할 계기가 있었으나, 청림절의에 바탕을 두고 가족의 일을 처리하면서 성공한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먼저 농장의 닭을 잡아먹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³⁷⁾ 김병화는 작은 아들 보리스를 더욱 사랑하였다.³⁸⁾ 아들 보리스가 어느 날 친척 형인 니콜라이 벤허노비치를 찾아와 친구들과 놀이를 위해 농장의 닭을 부탁하였다. 니콜라이는 닭을 잡아준 뒤에 김병화의 이름으로 달아놓았다.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한 김병화는 보리스를 불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고 한다. 또 꼴호즈에서는 돼지새끼를 기르도록 회원들에게 분양하였다. 이때 김병화의 부인은 기르겠다고 새끼 2마리를 가져왔다. 김병화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회원이기 때문에 1마리가 가능하지만, 부인이 회원의 자격이 없다며 1마리를 가져다주게 하였다.³⁹⁾ 이처럼 김병화는 회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였다. 「마시나에 부인 대신 다른 여인

35) 한 발렌틴, 「극장배우에게 월급 준 김병화」, 2013. 2. 24

36) 「환갑날에 성사시킨 일화」, 2009. 7. 9., 2012. 10. 23. 길은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가스는 연결을 늦어져 1974년 이후에 마을에 들어와 김병화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

37) 「농장을 닭을 잡아먹은 아들을 훈계한 김병화」, 2009. 7. 9., 2012. 10. 23.

38) 성동기, 앞의 책 228면.

39) 「하나만 받은 돼지 새끼」, 2012. 10. 23.

태우기」나 「환갑날에 밖에 나가지 못한 아이」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라 하겠다. 이와 같이 가족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도자로 처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⁴⁰⁾

다른 하나는 아들과 조카 풀야가 방학이 되어 모스크바에서 타슈켄트로 내려왔다. 역으로 마중을 나갔을 때, 젊은 조카는 당시 러시아에서 어른들만의 방한용으로 쓰던 슬라바라는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김병화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에화를 들어 조카를 나무랐다. 이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¹⁾

김병화는 가족에게 분수와 신분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도와주면서도, 가족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뒷전으로 미루고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하였다. 그런 대표적인 일화가 「감옥에 갇힌 아들」 일화이다. 김병화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후배가 빼어내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것은 꼴호즈의 다른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야 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감옥 갈 때 해결하여 주었던 것⁴²⁾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김병화는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살기를 바랐다. 당질인 니콜라이 벤허 노비치에 의하면, 김병화가 호레즘에서 살고 있는 니콜라이의 아버지에게 원동에서 처럼 친척이 함께 모여 살자고 불리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김병화는 가족을 그리워하였다. 자료는 없지만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동생 병일과 만남에서 보여주고 있다. 동생 병일과 만난 것은 김병화가 두 번째 노동영웅 훈장을 받았을 때 오크너라는 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병화는 이것을 보고 동생이 연락을 하자, 의심이 들어 니콜라이 아버지에게 상의를 드렸다. 그는 니콜라이의 아버지를 말을 듣고 모스크바에 가서 동생 병일을 30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형제는 하는 일이 달라 함께 살지 못하고, 살아 있는 동안에 2-3번 만나는 것으로 가족 관계를 끝맺고 말았다.⁴³⁾

40) 반면에 가족 간의 깊은 우애를 누리거나 사랑을 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가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긴밀하게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1) 「슬라바를 쓴 조카를 야단하는 김병화」, 2009. 7. 9.

42) 「자동차 벌금(은탕금)을 물지 않게 한 일화」, 2012. 10. 23.

김병화는 가족들을 규합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그 자녀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 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아들들은 이미 다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서로의 연락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김병화가 가족의 사회적 관리를 성공하였으나, 규합을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영웅적 서서구조와 의미

본장은 김병화 서사담을 통해 현대적 영웅담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나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선 김병화 서사담을 영웅담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렇지만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김병화는 소련에서 2번의 노동영웅을 받았고, 고려인들은 김병화를 고려인의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병화 서사담에는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장에서는 김병화 서사담을 전통적인 영웅서사담⁴⁴⁾과 다른 형태의 현대적 영웅서사담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김병화 서사담을 정리하면서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⁴⁵⁾

첫째, 현대적 영웅서사담은 탄생담이나 성장담에 대한 역할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병화 서사담에는 그가 함북 경흥의 대평재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 회소가 있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김병화 서사담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생애에 공청년 활동⁴⁶⁾이 등장하지만, 우즈벡 고려인들이 알고 있는 김병화의 성장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김병화 서사담에 통해 나타난 현대적 영웅서사담은 탄생담과 성장담이 거

43) 「동생과의 만남」 2009. 7. 9. 2012. 10. 23.

44) 조동일, 「영웅의 일생-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강현모,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4. 영웅의 일생으로 도식화되는 영웅담이나 생애담의 순환적인 모습을 드러낸 영웅담을 말하였다.

45) 김병화 서사담을 앞 강현모의 방식으로 검토하여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다른 추후에 다른 고려인들의 영웅담과 비교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6) 성동기, 앞의 책, 108~118면.

의 전승되지 않고, 활동담에 인과적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흥범도 서사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적 영웅서사담에서 탄생담이나 성장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소설의 흐름과 일치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구조에서 비롯된 전승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김병화서사담을 통해 볼 때 현대적 영웅서사담은 활동담이 가장 중요시되고, 실제로 서사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⁷⁾ 실제로 현대적 영웅서사담은 기존 무사적 영웅서사담에서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활동담에 의해 영웅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영웅서사담에서는 주인공의 탄생담과 성장담의 주인공의 활동담에 일정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김병화서사담에서는 이런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현대적 영웅서사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담의 서사내용은 주인공의 업적이나 훌륭한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있으나, 그보다 주인공이 제보자인 나의 삶과 일치함을 이루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종교적 신앙성과 같은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⁴⁸⁾ 기존의 영웅서사담에서는 등장하는 주인공이 구술하는 일반 민중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대적 영웅서사담에서는 주인공이 나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존재로, 주인공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웅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김병화에 관한 활동담에서 김병화는 우리와 다른 세계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숨 쉬고 활동한 존재이며,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주인공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인 동시에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김병화서사담에서는 최후담이나 사후담도 서사구조에서 주요성을 상실하였다. 사실 김병화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 자체가 그를 회상하는 사후담의 성격

47) 김병화의 서사담은 활동담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지만, 활동담을 제외한 생애담들이 활동담 등과 인과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48) 종교적 영성에서 믿는 것은 신의 존재와 내가 일치함을 이루는 것이다.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신앙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신앙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외하면 김병화의 죽음이나 사후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⁴⁹⁾ 그에 관한 최후담으로 장례식에 관한 것이 있고, 사후담으로 그의 청렴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병화의 길이나 마을이 생긴 유래⁵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최후담이나 사후담이 김병화 서사담의 서사구조에서 순화적인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다른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우즈벡에 전승되고 있는 고려인의 이중노동영웅인 김병화 서사담의 전승양상을 밝히고, 현대적 영웅담의 서사구조를 모색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소련 시대에 수많은 노동영웅들이 탄생하였다. 김병화, 황만금, 김 알렉산드리아, 홍범도 등과 김병화 마을에서도 26명의 노동영웅이 나왔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전승되어온 고려인의 대표적인 이중노동영웅인 김병화 서사담을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생애와 지역적 전승양상을 보면, 김병화의 생애는 꼴호즈의 지도자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함경도 경흥 대평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차우고삐에서 태어난 것으로 등록하여 소련 시민으로 살아갈 여건을 만들었다. 그는 12년 동안 군 생활을 불명예로 마감하고, 1940대 북극성의 지도자가 되어 34년간 근무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고 1974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김병화 서사담은 그가 활동한 마을이란 전승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김병화 서사담은 그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보다 우즈벡에, 우즈벡에서도 김병화 마을과 타쉬켄트 일원에만 전승되고 있다. 제보자 역시 김병화 마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 정밀한 현지조사와 다른 인물담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였을 때, 김병화 서사담의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9) 성동기, 앞의 책, 267~278면. 평전에 최후나 사후에 관한 삽화가 있으나, 구전 이야기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50) 신 에일리, 「김병화 마을로 명명된 유래」, 『김병화의 길』 2012. 10. 23

전승양상과 의미를 보면, 첫째, 자기 것과 욕심이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단벌복장, 허름한 관사인 집, 자신의 것과 꼴호즈 재산의 명확하게 구분하는 공과사가분명한 지도자였다. 둘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였다. 회의에서 지방 사람들을 배려하고 발언권을 주었으며, 길가에 가는 사람들(어른과 학생)을 자동차에 태워주고, 술 취한 운전사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였으며, 잔치 비용의 대여 등을 통하여 인간존중 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셋째, 집단 농장을 확장한 인물이었다. 김병화는 남보다 앞선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김병화 마을이란 작은 농장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며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넷째, 가족의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김병화는 사회적으로 가족을 잘 관리하였으나 규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물인 것 같다.

영웅담의 서사구조와 의미에서는 김병화가 실제로 이중노동영웅을 받았고 현지고려인들이 그를 영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김병화 서사담을 현대적 영웅서사담으로 받아드렸다. 이때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구조적 특징은 영웅의 일생이란 구조와 다르다. 즉 탄생담, 성장담, 최후담, 사후담이 기존의 영웅서사담의 서사구조에서와 같은 인과적 관련성이 거의 없고,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대적 영웅서사담에서는 오직 활동담이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양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전승되는 김병화 서사담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승양상과 새로운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서사구조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지역적 전승양상과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시론은 앞으로 홍범도, 황만금, 김만삼 등 다른 사회주의 계열 영웅담과 비교 고찰할 때 그 특징을 명확하게 추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김병화 서사담, 북극성, 지도자, 전승 유형, 우즈벡, 고려인, 현대적 영웅담, 서사구조

<참고문헌>

강현모, 현지조사 우즈벡 김병화 서사담의 자료 (미출간)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양상과 의미-전승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5, 비교민속학회, 2011. 8. 351~379면.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의 양상」, 『비교민속학』 제47집, 비교민속학회, 2012. 4. 387~416면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의 구비설화 전승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8. 147~169면.

강현모,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4.

김균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야기꾼 심이반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학』 8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6. 229~254면

김균태·강현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 굴누림, 2015.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성동기, 『김병화-우즈베키스탄 불멸의 고려인 영웅, 재외동포 재단선정 자랑스런 한민족』, 재외동포재단, 2006.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2008.

조동일, 「영웅의 일생-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Abstract]

A study on the Kim-Byeonghwa's narrative-story(folktales), hero of the Uzbekistan-korean.

Kang, Hyen-m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attern of transmission of Kim Byeong-hwa narrative, a story transmitted in Uzbekistan of Central Asia about Kim Byeong-hwa, an ethnic Korean and twice hero of labor, and to explore the narrative structure of contemporary heroic narratives.

Kim Byeong-hwa was born at Daepyeongjae in Gyeongheung, but as he reported chapigou(차삿고우) as his birthplace, he could live as a Soviet citizen. Since he became the leader of the North Star in the 1940s, he had left many achievements while working there for 34 years. Kim Byeong-hwa narrative has the limitation of transmission confined within the village where the character had worked, and the informants were also related to the village.

The pattern and meaning of transmission observed in Kim Byeong-hwa narrative are as follows: first, a clean and upright leader without greed; second, a leader respecting everybody; third, a leader expanding the collective farm; and fourth, a leader good at integrating and managing the family and building a community.

Different from the structure of a hero's life, the narrative structure of contemporary heroic narratives observed in Kim Byeong-hwa narrative ran around the character's activities, and episodes in the other periods did not play any notable role for the narrative structu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inferring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heroic narratives of the socialist group such as Hong Beom-do.

【Key words】 : Kim Byeong-hwa narrative, North Sta, leader, pattern of transmission, Uzbekistan, Goryeoin, contemporary heroic narratives, narrative structure

강현모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kanghyenmo@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4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6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